**연중 제19주일(2018년 8월 12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우리는 늘 맛있는 음식, 또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맛있는 음식은 정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먹습니다. ‘맛집’이라고 하죠. 동네 웬만한 맛집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각 지역마다 ‘맛집’ 목록이 다 나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 별 희한한 거도 다 찾아 먹고, 비싼 돈 줘도 아깝지도 않습니다.

‘먹자 모임’도 있죠. ‘먹자 계’도 합니다. 모여서 맛있는 음식, 몸에 좋은 거 찾아 먹는 일이 삶의 주된 목적이고 삶의 낙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또 이제는 좀 먹고는 살만 하니까 조금더 좋고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좋고 맛있다는 거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애쓰면서 사십니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좋은 피정이나 강의 들으러 다니고, 열심히 주일 미사에 나오십니까?

사실, 몸의 건강 만큼이나, 영혼의 건강, 정신의 건강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쓰고 삽니다. 물질 위주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 한마디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교회의 믿음이 되었고, 우리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빵을 지금 우리도 받아 먹고 있습니다. 매일 봉헌되는 미사를 통해서.

요즘 몇 주째 계속 ‘생명의 빵’에 대한 복음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 복음 6장 입니다. 우리 가톨릭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지난 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이야기에 계속 이어서, 지난 주와 이번 주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 당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몇날 며칠째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먹일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난 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진 먹을 것을 다 모아 보았더니 고작, 빵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쫄쫄 굶고 예수님만 그냥 쳐다 보면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찢어집니다. 불쌍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빵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로 그 많은 군중들을 다 먹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배가 부른 것에 만족하고 맙니다. 그리고 배를 부르게 해준 그 기적이 너무 고맙고 놀라워서 또 열렬히 예수님을 쫓아 다닙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배를 채울 음식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 영혼의 배고픔도 함께 모두 채워 주셨는데, 그런 사실을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냥 배부른 거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인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에 대해서 계속 알아듣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말을 못알아 듣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냐? 자기가 뭔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래?”하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번, 자기 자신이 생명의 빵이 될거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암시하셨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부터.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자 마자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구유는 동물의 ‘먹이통’입니다. 즉, 사람들의 ‘밥’이 되겠다는 운명을 태어날때 부터 암시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기 직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찬 의식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제사가 지금 우리가 봉헌하는 미사입니다. 미사때, 우리는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이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줄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2천년 전 어느날 늦은 오후 갈릴래아 호숫가의 벌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먹은 그 양식이 육체의 배고픔을 달래 주었던 빵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영혼을 채워준 양식이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처럼, 지금 우리도, 미사 중에 우리가 받아 모시는 이 성체가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 가고 있습니다. 출발도 달랐고,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목적지는 사실 같습니다. 천상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길도 가야하고,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나, 힘든 오르막 길도 가야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자 가야할 때도 있습니다. 지칠때도 많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멀고 험난한 인생 여정을 가기 위해서, 힘을 얻고, 기운을 차리게 해주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미사때 받아 먹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나 몸에 좋은 약만 찾아 먹지 마시고, 우리 영혼에 참 생명을 주는, 그리고 우리 인생 여정을 가는데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도 잊지 말고, 빠짐 없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래야 하늘 나라로 향하는 우리 인생 여정 끝까지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사 때 받아 모시는 성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의 양식입니다.